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후 1시 30분부터 선교회별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강을 지키는 기독교 행동에서 주관하는 기도회가 4일(화) 문경새재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3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3월 연합속회가 7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인도 - 에베소 속 식사준비 - 시온 속

: 권미숙 집사님의 장녀 박아영양의 결혼식이 8일(토) 오후 4시 용산 뮤지엄웨딩홀에서 거행됩니다.

기도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해보십시오. 늦은 밤에 하는 일들을 줄여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십시오. 잔설이 남아있지만 땅속 생명들은 주님의 정하신 때를 믿고 땅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인 모습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 주십시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어두운 그늘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60여 년 전 이 땅에서 총부리를 겨누었던 나라들이 음악을 통해 화해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랜 시간 조국을 갈라놓고 있는 분단의 철책이 조금씩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어렵게 되찾은 나라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긴 분단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박옥식 김춘려 방문성 박해경 김용진 박효선 김일랑 이은옥 박규석  
박경선 김희진 박홍재 박영희 방 민 신윤정 오진훈 노순옥 윤영원  
이선희 이봉옥 임승동 백해숙 임 영 정경례 정복순 김민주 권미숙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윤주원 최윤선 문홍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왕수명  
유충희 이재문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이정은 장재영  
김재영 구자훈 하정석 이명희 김지현 김지은

**감사헌금:**

박병구 임종길 김경애 왕성환 강순배 박지인 방 준 이광용 형인순  
문홍일 권미숙 정종삼 무명2

**생일감사헌금:**

임보람 백묘현 김순복 이광섭 무명1

**100주년 기념헌금 :**

(100주년 헌금 누계 : 163,292,000원)

|  |       |       |       |                  |
|--|-------|-------|-------|------------------|
|  | 장 해 숙 | 장 해 숙 | 송 임 회 | 연<br>합<br>수<br>회 |
|  | 노 순 옥 | 정 경 례 | 서 정 순 |                  |
|  | 임 정 자 | 임 정 자 | 서 원 금 |                  |
|  | 문 영 혜 | 박 경 선 | 곽 혜 자 |                  |
|  | 안 정 숙 | 박 애 순 | 박 옥 순 |                  |
|  | 박 홍 재 | 곽 권 희 | 김 춘 려 |                  |
|  | 박 효 선 | 허 정 윤 | 허 정 윤 |                  |
|  | 최 속 화 | 권 미 정 | 권 미 정 |                  |
|  | 이 순 정 | 김 금 순 | 이 봉 옥 |                  |
|  | 이 형 숙 | 권 미 숙 | 김 필 순 |                  |
|  | 안 흥 숙 | 오 현 정 | 정 현 주 |                  |
|  | 백 해 숙 | 정 옥 영 | 백 해 숙 |                  |
|  | 송 양 진 | 유 경 순 | 김 명 희 |                  |
|  | 이 영 란 | 박 미 영 | 윤 정 화 |                  |
|  | 박 해 경 | 최 영 혜 | 조 향 미 |                  |

# 열두 자 편지

함경도 안변에 있던 양사언이 한양의 백광훈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반가워 뜯어보니 사언이라고는 딱 열두 자뿐이다.

(삼천 리 밖 마음 친히 지내는 것은  
한 조각 구름 사이의 밝은 달이요)

그래 이만 사언 전하자고 천릿길에 편지를 부쳤더라 말인가? 너 보고 싶어 죽겠는데, 마치 구름 속에 숨은 조각달처럼 보일 듯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다는 말씀이다. 별말 없이도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고, 정은 행간에 고여 넘친다. 고맙지 않은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안변 쪽을 바라보며 그렇그렇 눈물이 맺혔을 백광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둘러봐도 살가운 마음 나눌 데 없고, 들리느니 말의 소음뿐이다. 깊은 밤 연구실에 앉아 하루의 언어를 돌아보면 까닭없이 부끄럽다. 어떤 수다, 어떤 요설로도 채워지지 않는 여백, 말할수록 달아나는 그 '텅 빈 충만'의 세계가 그림다. 옛 책갈피에서 우연히 만나는 옛 어른들의 따뜻한 채취, 천근 같은 무게에 코끝이 찡할 때가 있다.

- 정 민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 뿌리를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호흡과 거친 세상의 호흡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호흡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 이웃을 더욱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구도의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                 |              |
|-----------------|--------------|
| <b>주일 오후 집회</b> | <b>수요 집회</b> |
| 선교회 월례회         | 3월 기도의 밤     |
| 회장과 인도자         | 김재흥 목사       |

|                      |                  |                  |               |
|----------------------|------------------|------------------|---------------|
| <b>다음 주<br/>예배위원</b> | <b>설교</b>        | <b>기도</b>        | <b>성경봉독</b>   |
|                      | 김재흥 목사<br>김기석 목사 | 권아주 선생<br>김인걸 장로 | 인도자<br>홍순구 권사 |

|           |      |                         |
|-----------|------|-------------------------|
| <b>3월</b> | 영접위원 | 김철수 조문규 최철수 하정석 박애순 진정숙 |
|           | 헌금위원 | 한완식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 된장 만들면서 배우는 삶의 방식

### 사람의 사정에서 자연의 사정으로

나는 된장도 직접 만들고, 메주도 직접 발효시킨다.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그런 귀찮은 일은 도저히 못한다고 하겠지만,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은 잘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삶은 조금씩 변해간다. 생각해보면 100년만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은 아니다. 된장을 만들기에겐 겨울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메주를 발효시키는데 적합한 때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봄이나 가을이다. 된장 만드는 것도 그때 하면 좋은데 왜 겨울이냐 하면, 겨울이 농한기로 된장을 만드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사정이다. 사람 편에서 보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점이 생긴다. 이것은 농업의 세계에도 많이 볼 수 있다. 오늘의 문명사회에서는 자연의 상황을 무시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점을 구체적인 면에서 반성하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 된장 만드는 것은 부부사이의 금슬과 같다.

이런 말이 있다. “좋은 메주를 만들려면 부부간의 정의(情誼)가 좋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메주를 만드는 사람은 예외 없이 부부간의 정의가 좋다.” 메주 만드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마음 조이며 지켜보는 것은 연애의 경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만드는 쪽의 사정만으로는 결코 좋은 메주가 될 수 없다. 메주의 상황을 보며 이쪽에서 준비를 해주고 만지고 지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절한 때에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틀림없이 잘 해주는가에 따라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결정된다. 시간이 없을 때 틈을 봐서 하는 일은 실패한다. ...

금슬이 좋은 부부는 상대가 기뻐하면 자신도 즐거운 기분이 되고, 상대의 기분과 입장을 생각하며 상대와 힘을 합하여 자기의 희망을 실현해 간다. 서로 슬기롭게 행동하는 부부이다. ... “이 정도만 해줘도 되겠지” 하면서, 내 일정에 맞춰 맘대로 해도 잘 되겠지, 하는 자세로는 부부의 정의 좋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부부사이의 정을 좋게 하는 것이 좋은 장

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 좋은 부부가 되는데는 된장처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 그 자체 고유의 시간

... 참으로 맛있는 된장은 오래 묵혀야 된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양조의 세계이다. 참으로 좋은 것을 발효시키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논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밀어붙여 빨리 완성을 서두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실제 숙성양조장은 경제의 논리로 만들고 있지만, 손수 만드는 된장은 된장의 논리에 따라 된장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숙성시키는 것이다.

###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의 폐해

일본의 농업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가, 공해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그런 선상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우리들은 ‘기다림’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교육도 그런 의미에서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아이가 자라는 고유의 논리를 잊어버리고, 어버이나 교사는 빨리 커서 빨리 현명하게 되라고 무리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다리는 것은 상대가 갖고 있는 자연의 논리, 자연의 되어가는 과정을 안정된 자세로 관찰하며 무리한 요구를 불쑥 내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의 자연스러운 성숙을 안정된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다. 돈 버는데 바쁘면 기다릴 수 없게 된다.

이 고도성장기 이후의 ‘기다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여러 가지 난제가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생명을 잠식해온 공해문제가 그 전형이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도 진정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긴 안목으로 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계산한 까닭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상금으로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질소나 비소우유 중독을 일으킨 모리나가는 그와 같은 부채를 아직도 질질 끌고 있다.

환경문제만이 아닌 교육의 황폐화 등 사회문제의 큰 원인은 우리들이 천천히 행동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조급히 하지 말고 대지에 발을 딛고 ‘걸는 속도로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